‘백제세계유산의 가치를 탐하다’

‘2024 세계유산축전-백제역사유적지구’ … 익산 백제왕궁서 내달 3일까지 개최

개막식에 ‘포르테나’ 공연·9가지 선물·무왕의 도시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익산 백제왕궁(왕궁리유적)에서 펼쳐지는 ‘2024 세계유산축전-백제역사유적지구’가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선보인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세계유산축전의 주제는 ‘백제세계유산의 가치를 탐하다’로 익산 백제왕궁에서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된다.

27일 개막식에서는 백제 30대 무왕의 이야기를 담은 주제 공연 ‘익산 로맨스(Iksan Romance)를 선보인다. 이어 팬텀싱어4에서 준우승을 한 크로스오버 보컬그룹 ‘포르테나’의 축하공연과 함께 아름다운 백제왕궁에서 세계유산 축전의 성대한 막을 올린다.

축제 기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지닌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와 역사를 다채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 ‘9가지 선물’이 진행된다.

‘9가지 선물’은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 9주년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으로 △축전시간여행 △탐9랜덤박스 △백제인 MBTI △백제인퍼스널컬러 △백제디저트 △백제예찬 △백제마블 △어린이팝업존 △행복엽서로 구성됐다.

특히, 축전시간여행과 백제인 MBTI, 백제마블 등 백제의 유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체험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축전시간여행’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익산 백제왕궁서 펼쳐지는 ‘2024 세계유산축전-백제역사유적지구’가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선보인다.

와 축전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여행 상품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축전 기간 3회 진행된다. ‘백제인 MBTI’는 백제 시대 인물들과 자신을 비교해보는 체험으로 방문객들이 백제의 인물과 자신을 연결해보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백제마블’은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배경으로 보드게임 형식 체험으로 백제의 유산을 게임으로 즐기며 색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접할 수 있다. 전국 각지서 예선전이 치러지며 세계유산 축전 기간 총 3회의 본선이 이뤄진다.

28일 익산에서만 진행되는 ‘무왕의 도시락’은 익산·공주·부여의 식재료를 활용한 도시락 쿠킹쇼다. 이순신 밥상을 브랜드화한 전도근 박사와 개그맨 손헌수가 현장에서 무왕의 도시락을 만들고 시식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전예약으로 진행된다.

이날 고고학자 곽민수와 퓨전국악팀 소리맵시가 함께 선보이는 렉처 콘서트는 더욱 풍성한 백제 이야기를 선보인다. 29일에는 유튜버 궤도와 팝페라가수 아리현이 강사로 나서 백제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익산시는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개막 당일인 27일 팔봉 공설운동장에서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직통형 순환버스를 운행한다. 27일 행사장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등을 배려한 주차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세계유산축전 공식 누리집www.baekjeworldheritage.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9주년 기념하는 이번 축전은 익산을 시작으로 공주, 부여서 일주일씩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며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생동감 있게 체험하고 세계유산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4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우수상 수상

‘철길따라 부는 신나는 건강바람, 군산을 움직이다’ 주제로 호평

산림녹지과·아동정책과·보건소가 협업해 다양한 사업 선보여

군산시가 25~26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DDP)에서 열린 제19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2024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1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됐다.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가 103개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개최되는 건강도시 공모전이다.

심사는 사업내용, 자치단체장의 의지, 추진전략, 추진성과 지속·확산 가능성을 평가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대상은 서울 강남구가 받았으며 서울 은평구·서대문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군산시와 서울 동대문구, 경기 고양시가 받았다. 특히 군산시는 유일한 지방도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산시는 ‘철길 따라 부는 신나는 건강 바람, 군산을 움직이다’라는 주제로 산림녹지과·아동정책과·보건소가 협업해 다양한 사업을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림녹지과의 경우 현재 폐철도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도심에 건강한 바람을 유입시키기 위해 구상된 ‘도시바람길숲’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위해 100억 규모의 국비도 확보했다.

또한 월명공원, 금강공원, 청암산 억새 길 등에 각각의 특성이 반영된 황토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아동정책과가 주관하는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월명숲을 활용해 매년 운영하는 어린이 숲속 걷기대회, 어린이 숲 체험교실도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운영 과정에서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한 △1530 걷기리더 △노담(No 담배)특공대·노담학교 만들기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동아리 운영과 민·관·학이 협력하여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HoHo 건강일터 사업 운영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군산시는 시민의 건강환경조성을 위한 시장의 공약 이행과 주민의 참여로 이어가는 건강증진 사업 수행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 오식도동에 산단 복합문화센터 개관

기업지원센터·산단민원센터·도서관·체력단련실 등 시설 구비

군산시 오식도동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지난 25일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번에 문을 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행정, 복지, 문화의 접근성을 높여 편의와 만족도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박종배 한국산업단지 전북지역 본부장을 비롯해 관계기관 및 회사 임직원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를 나눴다.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9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완공되었으며,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쳤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하루 평균 200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25일을 기점으로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행정, 문화, 복지 등 행정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어 복합문화시설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게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지역 도의원과 정책간담회 개최

시정 주요 현안 공유·도 협력사업 논의

군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원들은 지난 25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군산시 시정 주요 현안과 도 협력사업에 대하여 공유하고 협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강태창 의원, 김동구 의원, 박정희 의원 등 4명의 군산 지역 도의원과 신원식 부시장을 비롯한 군산시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양측은 전북특별자치도 협조가 필요한 주요 사업과 시정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앞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군산대학교 지역연계 복합센터 건립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태양광 설치지원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지원 건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원사업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사업 △삼학동 1구역 뉴빌리지 사업 등이 논의됐다.

군산시 간부 공무원들은 새만금 현안에 대하여 군산시의 의견을 전달했고, 전북자치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학교, ‘후원의 집’ 모집

국립군산대학교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과 지역 상생을 위해 ‘후원의 집’을 모집하고 있다.

국립군산대학교 후원의 집을 신청하면 매월 대학에 일정액의 발전기금을 기부한다. 대학은 대학 구성원과 동문들의 후원의 집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업소에 후원의 집 명패를 부착하고, 대학 홈페이지와 LED전광판을 통해 업소 사진과 주소 등을 홍보한다. 또한 연말에는 세제 혜택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다.

26일 오전 후원의 집 ‘오감’에서 최연성 총장 직무대리와 이원범 대외협력부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의 집 현판식을 진행했다. 국립군산대는 오감을 시작으로 현재 60여 개 후원의 집에 새로운 현판을 부착해 대외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군산대학교 발전지원재단(063-469-732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반려동물 페스티벌 ‘2024 댕스티벌’ 시즌2 개최

익산시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1500만 반려가족을 위한 반려동물 페스티벌 ‘2024 댕스티벌’ 시즌2를 오는 28일 함열 다송무지개매화마을에서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이번 댕스티벌은 익산시 대표 마을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돌아왔다. 28일 열리는 행사는 사진 콘테스트, 친구 태그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색 콘텐츠로 구성된다. 또한 행사 현장에서는 플리마켓, 유기견 분양 등도 진행된다.

사진 콘테스트는 사전 접수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행사 당일 현장에 전시돼 참가자와 관람객이 수상작을 선정한다. 참가 신청은 반려견과 소중한 순간을 담은 사진 한 장을 이메일(dasong1123@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누리집이나 다송무지개매화마을(063-862-1123)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슬기로운 마한 생활’ 프로그램 운영

“옷에 예쁜 장식을 달아 멋을 내고, 토기를 사용해 품격 있는 식생활을 한 마한 사람들을 만나 보세요”

익산시 마한박물관이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획 전시 ‘슬기로운 마한생활’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음달 3일 개막하는 ‘제55회 마한문화대전’에 발맞춰 마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는 ‘마한 사람들을 어떻게 살았을까?’를 주제로 마한의 생활상과 관련된 유물 30여 점을 선보이고, 체험 활동으로 △가락바퀴로 실 만들기 △토기에 문양 찍기 △마한 유물 자석놀이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마한문화대전 기간인 10월 3일~5일까지 ‘슬기 담은 마한체험’을 주제로 마한 새모양토기 자개 모빌 만들기, 마한 유물 비즈 열쇠고리 만들기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마한박물관(063-859-48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